

투데이

베니스 주인공 김기덕 '아웃사이드의 승리'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52) 감독은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할 수 없는 고유한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1960년 봉화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003년 연출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는 국내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쥘며 국내에서도 드디어 인정받는다.

이어서 2001년 '수취인불명'으로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2001년에 마상을 받았다. 같은 해 대학로에서 불꽃 3시간 만에 찍었다는 '실제상황'도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다.

2005년에는 '할'로 칸국제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고 2007년에는 '숨'으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다.

김감독이 이렇게 유럽에서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평론가들은 김 감독 영화 특유의 야성적인 매력과 종교적인 메시지,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을 꼽는다.

지역잔치 전략 '아트광주' 존폐 위기

유명 화랑 대거 불참...기업·컬렉터도 등돌려

지난 5일 프레 오픈을 시작으로 9일까지 열린 '아트광주 12'가 막을 내렸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여 국내외 미술계에 적극 알렸다는 긍정적 평가보다 국내외의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객객 뿐만 아니라 컬렉터를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도 실패,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갤러리 등 국내 대형 갤러리도 대부분 불참해, 국제아트페어의 위상에 어울릴만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문화재단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화랑을 무료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해 부스 판매수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도 아트페어 위상을 하락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미술계 불황까지 맞물리는데, 해외 컬렉터의 관심을 끌거나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홍보·마케팅 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아트광주 12'에는 애초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사치(Saatchi) 등 해외 유명 갤러리와 뉴욕 APT(Artist Pension Trust·작가 연금신탁) 등이 불참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품을 구입해주는 '아트뱅크' 혜택도 대부분 지역 작가를 위주로 돌아가게 해 나머지 갤러리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도 나온다. '지역 잔치'를 할 거면서 왜 수도권과 타지역 갤러리를 불러들였냐는 비판이다. 전시장에는 시립미술관측이 구입했다는 표시로 붙여놓은 '빨간 딱지'가 곳곳에 붙었는데, 대부분 지역 작가를 위주로 이뤄져 시립미술관이 이번 행사의 '최대 컬렉터'로 떠올랐다.

광주시 3D컨버팅 내일부터 LA현지 테스트

羨시장, 오늘 임시회서 입장 밝힐듯

광주시가 추진해 온 3D컨버팅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의 미국 현지 기술 테스트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이미 70여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이번 테스트로 결정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라자오도 '국제사기에 당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러 14일까지 최종테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LA의 '인스파이어'사에서 진행 중인 예비테스트에는 한미합작법인인 겸코의 김병호 대표를 비롯해 3D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회용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과 언론인 등 5명이 최종테스트를 참관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폭포수 등 3D로 변환하기 까다로운 영상들만 골라 담은 것이다. 광주시는 이 2D영상물의 5초 분량을 1시간 내에 3D로 변환하면 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광주CGI센터에 있는 3D컨버팅 전문업체 EMIG사는 이 영상물의 5초 분량을 3D로 변환하는 데 10시간이 걸린다. EMIG는 현재 한국에서 3D 변환 작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일반 3D변환회사의 속도보다 12배가량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미국 측에 송금된 650만 달러 외에 3D변환작업용 워크스테이션 100대를 광주CGI센터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46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된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실패할 경우 광주시는 이미 지급된 65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측 파트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0년 전통 북경당 인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한의박사 박상준 원장/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문의전화 062)227-7575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입니다.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웨이터, 웨이츄러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2. 자격요건: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3. 급여: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여행보통가입 등.